

# 신기질(辛棄疾)의 남조(南朝)에 대한 역사적 기시감(既視感)과 문학적 형상화

서 성\*

##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남조에 대한 기시감
  - 1) 몸소 겪은 남도
  - 2) 남북 대치의 역사적 기시감
  - 3) 남조에 대한 기시감
  - 4) 역사 현장에서의 남조 회고
  - 5) 인물 전고에 나타난 역사적 기시감
3. 마무리글

## 1. 문제의 제기

남송 초기에 활동했던 신기질(辛棄疾)은 소식(蘇軾)과 더불어 호방사(豪放詞)를 대표하여 '소신(蘇辛)'이라 병칭되며, '사 가운데 용(詞中之龍)'이라 칭해지기도 한다.<sup>1)</sup> 또 그의 작품은 '영웅의 사(英雄之詞)'라 불리기도 한다.<sup>2)</sup> 이러한 명명은 모두 신기질이 다른 시인들과 뚜렷이 구별되며, 그의 사에 웅건한 풍격이 있음을 말해준다.

\* 배재대 교양교육부 부교수 (samsun99@hanmail.net)

1) 陳延焯, 『白雨齋詞話』 권1: “辛稼軒, 詞中之龍也. 氣魄極雄大, 意境却極沉鬱.” 唐圭璋 編, 『詞話叢編』, 中華書局, 1986, 3791쪽.

2) 王士禛은 사를 詩人之詞, 詞人之詞, 英雄之詞로 나누고, 英雄之詞에 소식, 육유, 신기질, 유극장을 넣었다. 『倚聲集序』: “有英雄之詞, 蘇陸辛劉之屬是也.” 辛更儒, 『辛棄疾資料彙編』, 中華書局, 2005, 245쪽.

신기질이 소식을 이어 본격적으로 호방사를 쓴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사실 호방사는 범중엄(范仲淹)과 하주(賀鑄) 등이 간헐적으로 시도하다가 소식이 본격적으로 시의 요소를 끌어들이 사의 표현력을 넓히고 향염(香艷)하고 부려(富麗)한 정서 대신 웅건하고 격양된 정조를 주입했지만, 소식의 호방사는 분량이 적었기에 이를 따라 쓴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소식의 호방사는 바로 사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기질의 경우는 달랐다. 무엇보다도 송나라가 남도(南渡)한 후 국가의 현실 문제가 곧 문학의 중심 내용이 되었다. 남송 초기부터 섭몽득(葉夢得), 진여의(陳與義), 장원간(張元幹), 장효상(張孝祥), 육유(陸游), 신기질(辛棄疾), 진량(陳亮), 유과(劉過), 유극장(劉克莊), 진인걸(陳人傑) 등이 주로 이러한 현실 문제를 다룬 사를 지어 선명한 문학 조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호방사를 이끌어간 사람이 곧 신기질이였다. 때문에 소식이 처음 제시했던 호방사는 한동안 공백기를 거친 후 신기질이 본격적으로 일으켜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송대는 당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학적 정서가 우미(優美)한 경향을 보였다.<sup>3)</sup> 그중에서도 송시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완약(婉約), 즉 우아함과 감상(感傷)을 위주로 하여 더욱 아정(雅正)하면서 향락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그림 그려진 병풍에서 황금 자고새 나는”(畫屏金鷓鴣) 실내에서 미인이 “게으르게 일어나 아미를 그리고”(懶畫蛾眉), 정인을 만나 ‘비단 허리띠’(羅帶)와 ‘향낭(香囊)을 풀어 정을 보이고, 배 타고 떠난 정인이 ‘새벽바람에 스러지는 달’(曉風殘月) 아래 어느 언덕에서 깨어나는지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이제는 남도한 국가 현실과 시대의 고민에 직면하여 야성과 힘을 요구하였고, 양강(陽剛)과 기세(氣勢)를 미감으로 하는 새로운 문학을 추구하였다. 고종의 중흥 정책에 호응하여 국가주의는 모든 문화 영역에 스며들었다. 애국시(愛國詩)와 애국사(愛國詞)는 문단을 주도하여 충분(忠憤)을 호소하고, 장대한 포부를 토하고, 뜨거운 열정을 말하였다.

3) 楊海明, 『唐宋詞史』, 江蘇古籍出版社, 1987. 147-167쪽.

이처럼 남송의 호방사는 송 조정의 남도라는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때문에 신기질의 시 속에 남송의 상황과 현실 인식은 어떠했는지가 그의 작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사 작품은 629수로 송대 사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를 남기고 있는데, 특히 역사 전고를 운용 하는데 뛰어나 역사 속의 인물을 수시로 불러내 말하고 호소하였다. 그가 인용하는 인물과 지리와 시대 중에는 남조에 관한 전고가 많으며, 특히 동진의 시대 상황, 지리, 인물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조에 대한 이해는 곧 그가 살았던 남송의 현실을 비유한 것이며, 이는 그의 호방사와의 성격과도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신기질의 남조 인식이 그의 현실과 역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밝히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본다.

## 2. 남조에 대한 기시감

신기질의 현존하는 작품은 총 629수로,<sup>4)</sup> 이 가운데 역사에 대한 전고가 도처에서 발견되며, 특히 남조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한과 동한을 합한 전고보다 서진과 동진을 합한 전고가 배나 많으며, 서진의 전고보다 동진의 전고가 배나 많다. 게다가 동진의 전고는 반복성이 강하여 자주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역사 전고 가운데서도 남조 초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기질은 이들 전고를 가지고 당면한 남송의 초기 상황을 비유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그가 남조를 통해 남송을 보았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그는 남송에서

4) 신기질의 사는 그의 생전에 제자 范開가 『稼軒詞』를 편찬하면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203년에 간행된 四卷本 『稼軒詞』는 만년의 작품을 제외한 427수를 수록하였다. 이후 1299년 원대에 간행된 十二卷本(일명 信州本) 『稼軒長短句』는 572수를 수록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鄧廣銘은 역대로 전해오는 여러 詞集을 교감함은 물론 『永樂大典』, 『清波別志』, 『草堂詩餘』 등에 실린 작품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孔凡禮의 『全宋詞補輯』까지 반영하여 총 629수를 정리하여 『稼軒詞編年箋注』를 펴냈다.

남조의 역사적 기시감(既視感)을 느꼈다. 그의 남조에 대한 기시감은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신기질 자신이 직접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간 경력이 있다. 둘째, 한족 중심의 남송이 여진족에 밀려 강남지역으로 내려간 것은 한족 중심의 남조가 북방의 비한족(非漢族)에 밀려 강남지역으로 내려간 역사와 유사하였다. 셋째, 남송의 강역 자체가 남조의 강역과 비슷하였다. 넷째, 남송의 역사적 유적지에서 남북 대치의 역사적 일들을 회고하였다. 다섯째, 인물 전고에서 남조의 인물들로 작성과 분발을 촉구하였다. 특히 남조 가운데서도 초기인 동진의 상황은 북방에서 막 내려간 남송과 유사하기에 신기질의 전고가 집중되었다.

#### 1) 몸소 겪은 남도

신기질의 생애에 있어 청년기에 자신이 직접 금나라에서 강남의 남송으로 내려간 일은 현실의 문제를 몸소 체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중원의 상실과 남북의 대치라는 현실을 생생히 겪는 일이었다. 신기질은 그가 태어나기 13년 전(1127년) 북송이 금나라에 의해 정강지변(靖康之難)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에 금나라에서 태어났다. 그가 22세 되던 1161년 금나라 황제 완안량(完顏亮)이 남송을 치러 내려가던 중 장강 북안의 과주(瓜洲)에서 피살되자, 이러한 혼란에 상응하여 중원에서 항금(抗金)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신기질도 제남(濟南)에서 의병 2천명을 모아 경경(耿京)의 봉기군에 가담하고 그의 장서기(掌書記)가 되었다. 평소 남송과의 연합을 주장하던 그는 경경의 승낙을 받아 1162년(23세) 군사를 이끌고 남송으로 내려가 건강(建康, 지금의 남경)에서 고종(高宗)을 알현하고 북방의 형세를 보고하였다. 이후 산둥으로 돌아가던 도중 경경의 수하 장안국(張安國, ?-1162)이 배반하여 경경을 죽이고 금나라에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신기질은 50여 기병만 데리고 내달려가 금나라 5만 부중을 상대로 싸우고 장안국을 생포하여 건강으로 내려갔다.<sup>5)</sup> 이때의 일을 그는 「자고천 —청년 때 깃발

5) 위의 신기질의 사적은 脫脫 等撰, 『宋史』「辛棄疾傳」, 中華書局, 1985와 鄧廣銘, 『辛棄疾傳 辛稼軒年譜』, 三聯書店, 2007을 요약하였다.

들고 용사 만 명 이끌고」(鷓鴣天 —壯歲旌旗擁萬夫)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청년 때 깃발 들고 용사 만 명 이끌고  
비단 적삼에 돌격 기병으로 장강을 처음 건넜지.  
북방의 군사는 밤에 은호족(銀胡鞞)을 정돈하고  
한나라 화살은 아침에 금복고(金僕姑)를 날렸지.  
(壯歲旌旗擁萬夫，錦襜突騎渡江初。燕兵夜妮銀胡鞞，漢箭朝飛金僕姑.)

그는 '북방의 군사'(燕兵)와 '한나라 화살'(漢箭)로 남송과 금, 적과 아, 북방과 남방, 비한족과 한족을 명확하게 대립시켰다. 여기에서 그의 현실 인식과 역사 이해는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3세 때의 비범한 담력과 기백으로 이루었던 이러한 쌍방 교전에서 올린 혁혁한 성과와 고증을 알현한 경력은 그의 인생의 의의와 지향을 잘 보여준다. 청년 신기질은 북송과 남송 교체기의 현실을 자각하고, 금나라에 빼앗긴 북방의 고향 땅을 찾으려는 이상을 가진, 군사적 지휘 능력이 뛰어난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당시의 형세를 분석하여 대응책으로 효종에게 올린 「미근십론」(美芹十論)과 재상 우윤문(虞允文)에게 올린 「구의」(九議)를 보면 정치, 군사, 경제, 지리, 전쟁에 대한 형세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어, 형세 판단과 책략에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송의 위정자들은 주화파가 주도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하였고, 신기질과 같은 주전파는 오히려 그들의 견제를 받아야 했다. 신기질은 지방의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주 전직(轉職) 명령을 받았고 때로 탄핵을 당해 남송에서 생활한 약 40년 동안 약 20년은 면직 상태로 살았다.

그의 남송에서의 생활은 세 번의 출사와 세 번의 은거로 요약된다. 그 대략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162년(23세) ~ 1181년(42세): 첫 번째 관직 생활
- 1182년(43세) ~ 1192년(53세): 대호(帶湖) 한거 시기
- 1192년(53세) ~ 1194년(55세): 두 번째 관직 생활(북건)
- 1194년(55세) ~ 1202년(63세): 표천(瓢泉) 한거 시기
- 1203년(64세) ~ 1204년(65세): 세 번째 관직 생활(절강)

1204년(65세) ~ 1207년(68세): 표천 퇴거 시기

관직 생활 중에도 자주 전직하였던 것은 주화파들이 신기질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또 중간중간 조정에서 탄핵을 가하여 은거 아닌 은거를 하게 되었다.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었고, 이러한 고충을 “두 해 동안 초 땅의 산천을 두루 편력하였노라”(二年歷遍楚山川)라고 하는가 하면, “온갖 군현 다녔기에 수레 오르기 겁이 나고, 천 리 멀리 물건을 말에 실어 옮겼지.”(百郡怯登車, 千里輸流馬.)라는 토로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신기질이 살았던 남송은 회수를 경계로 북의 금나라에 대치하여 남방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형세는 북방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기질에게 있어 고향 땅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하였다. 그의 고향은 곧 민족과 국가의 땅이어서 실지(失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때문에 신기질에게서 고토 회복이라는 이상은 생애적인 것이었고 자신의 존재 의의이기도 했다. 중원 회복이 절실한 그로서는 남북 대치의 유사한 역사가 남송 이전에도 있었음을 부단히 상기시키며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였다.

## 2) 남북 대치의 역사적 기시감

신기질의 작품에 나타나는 남송의 지명이나 지리적 개념은 남조와 중첩된다. 그것은 남송이 북방에서 내려왔듯이 남조가 북방에서 내려왔고, 남송의 강역이 남조의 강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가 신주(神州), 중주(中州), 장안(長安)을 말하는 것은 곧 중원을 가리키며, 으레 잃어버린 고토에 대한 한과 연결된다. 이들 어휘는 그의 작품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먼저 신주라는 말을 사용한 예를 보자.

동남에는 상서로운 제왕의 기운이 있고  
서북에는 신주(神州)가 있구나.  
(有東南佳氣, 西北神州.)

—「성성만 —수레 먼지 일으키며」(聲聲慢 —征埃成陣)

나라의 일은 하나건만 사람 마음은 달라  
그들에게 묻노니 신주(神州)는 결국  
몇 번이나 분열하였는가?  
(事無兩樣人心別. 問渠儂神州畢竟. 幾番離合?)

—「하신랑 —늙었으니 무얼 말하라마는」(賀新郎 —老大那堪說)

천한 내가 몸소 두 번 절하니  
서북에는 신주(神州)가 있음을 잊지 마소서.  
(賤子親再拜. 西北有神州.)

—「수조가두 —상공은 정무에 싫증이 나」(水調歌頭 —相公倦台鼎)

신주라는 말은 남송에 있어 서북쪽의 중원 땅, 곧 금나라의 강역이 된 중원을 가리킨다. 이는 동진 때도 쓰이던 말이었다.<sup>6)</sup> 원래 신주는 적현신주(赤縣神州)의 준말로 우(禹) 임금이 말한 구주(九州)의 의미와 같다.<sup>7)</sup> 온전한 중국의 강역을 모두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 동진 때의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있다. 신기질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신주라는 말을 사용한 예를 보면, “고국은 어디에 있는가? 두 눈에 가득한 풍광을 북고루에서 바라보노라.”(何處望神州? 滿眼風光北固樓.), “바라보면 중원엔 선비들이 가득했는데”(起望衣冠神州路), “중원이 함락되어도, 언제 머리 돌려 보기라도 했던가?”(神州沉陸, 幾曾回首!), “서북에는 아직 수복할 땅이 있다네”(西北有神州) 등등 모두 지극히 침통하다.<sup>8)</sup>

중주(中州)와 장안(長安)이라는 말도 중원을 의미하며 작품의 내용도 잃어버린 고토에 대한 탄식과 관련된다.

6) 동진 때 사용한 예는 환온이 북벌 때 “遂使神州陸沉, 百年丘墟, 王夷甫諸人不得任其責.”라고 한 말에서 뚜렷이 보인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언급하였다.

7) 司馬遷, 『史記』「孟子荀卿列傳」: “中國名曰赤縣神州. 赤縣神州內自有九州, 禹之序九州是也.” 中華書局, 1985, 2344쪽.

8) 작품 원문에서의 ‘神州’는 우리말로 ‘신주’라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더 적절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전후 문맥에 맞추어 ‘중원’, ‘고국’, ‘수복할 땅’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아래에 나오는 ‘中州’도 ‘중원’이라 번역하였다.

중원에 남겨진 한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름겨워 하는지 모를레라.

(中州遺恨, 不知今夜幾人愁.)

—「수조가두 —나그네가 오래도록 오지 않건만」(水調歌頭 —客子久不到)

중원을 바라보며 나라가 망했다고 ‘서리지탄’(黍離之歎)을 하지 마오

‘원화 성덕시’는 그대가 지어야 하는 것.

(莫望中州歎黍離, 元和聖德要君詩.)

—「정풍파 —중원을 바라보며 나라가 망했다고 ‘서리지탄’을 하지 마오」(定風波 —莫望中州歎黍離)

서북으로 장안 쪽 바라보니

안타깝게도 무수한 산으로 막혀 있구나.

(西北望長安, 可憐無數山.)

—「보살만 —울고대 아래 맑은 강물」(菩薩蠻 —鬱孤臺下清江水)

이들 어휘에 대비하여 서북(西北), 새(塞), 호(胡), 연(燕) 등은 북방, 즉 금나라를 가리킨다. 신주(神州)와 중주(中州)와 장안(長安)<sup>9)</sup>이란 어휘는 번성했던 주한당(周漢唐) 왕조를 연상시키면서 되찾아야 할 신성한 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서북이나 호 등의 말은 정벌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어감을 준다.

머리 들어 서북쪽의 구름을 바라보니

하늘까지 닿는 장검이 있어야 하리.

(舉頭西北浮雲, 倚天萬里須長劍.)

—「수룡음 —머리 들어 서북쪽의 구름을 바라보니」(水龍吟 —舉頭西北浮雲)

해 떨어지는 변경에 먼지 일어나

오랑캐 기병이 가을에 전쟁을 일으켰지.

(落日塞塵起, 胡騎獵清秋.)

9) 그 밖에 장안이란 말을 쓴 구절로는 “그대는 홀로 십만 병사를 거느릴 수 있으니, 장안이 바로 하늘 서북쪽에 있다네.”(此老自當兵十萬, 長安正在天西北) —「만강홍 —평생 천하에 뜻을 두었으니」(滿江紅 —湖海平生)에서 보인다.

—「수조가두 —해 떨어지는 변경에 먼지 일어나」(水調歌頭 —落日塞塵起)

듣건대 임금 계신 도성에서는  
은하수의 파도를 끌어와  
서북의 오랑캐 먼지를 씻으려 한다지.

(聞道清都帝所, 要挽銀河仙浪, 西北洗胡沙.)

—「수조가두 —악와에서 온 천리마 같이」(水調歌頭 —千里渥洼種)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물으니 “된다”고 대답한다.

(燕可伐與曰可)

—「서강월 —당상의 참모는 작전을 세우고」(西江月 —堂上謀臣帷幄)

서북(西北)은 남송의 도성 임안(臨安)에 비해 장안과 낙양 등 중원이 서북쪽에 있기 때문이고,<sup>10)</sup> 새(塞)는 주로 북방의 변경을 말하고,<sup>11)</sup> 호(胡)는 북방의 비한족 민족을 가리키고,<sup>12)</sup> 연(燕)은 동북 지방과 그 민족을 가리킨다.<sup>13)</sup> 이들 어휘는 새진(塞塵), 새북(塞北), 호사(胡沙), 호진(胡塵), 연병(燕兵) 등으로 증식되며 유사한 의미의 말 꾸러미가 된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악비(岳飛)의 「만강홍 —분노로 머리카락이 관을 들어올리

10) 그밖에 서북이란 말을 쓴 구절로는 “소매 안에는 기이한 오색의 옥돌이 빛나, 언젠가 무너진 서북의 하늘을 메울 것이로다.”(袖裏珍奇光五色, 他年要補天西北.) —「만강홍 —봉세가 날개를 펼쳐 날며」(滿江紅 —鵬翼垂空), “누대에 오른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난간에 기대 고개 돌려 서북쪽 바라본다.”(登樓更誰念我, 却回頭西北望層欄.) —「목란화만 —예전에 이 누대 위에 오른 나그네」(木蘭花慢 —舊時樓上客) 등에 보인다.  
11) 그밖에 새북이란 말로 강남과 대비시켜 “평생 동안 떠든 변경과 강남, 돌아오니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平生塞北江南, 歸來華髮蒼顏.) —「청평악 —굽주린 쥐는 침상을 땀똥고」(清平樂 —繞床饑鼠)라 하였고, “근래 변경의 북방에서, 전해온 진정 좋은 소식.”(新來塞北, 傳到真消息.) —「청평악 —근래 변경의 북방에서」라 하였다.  
12) 그밖에 호진(胡塵)이라는 말을 써서 “석양에 오랑캐 먼지 여전한데, 서풍 속 강남의 말들은 헛되이 살만 찌누나.”(落日胡塵未斷, 西風塞馬空肥.) —「목란화만 —한중에서 한나라가 나라를 잃었으니」(木蘭花慢 —漢中開漢業)라 하였고, 또 “한수는 동으로 흘러가며, 수염 난 오랑캐의 피와 기름을 모두 씻어버렸어라.”(漢水東流, 都洗盡鬣胡膏血.) —「만강홍 —한수는 동으로 흘러가며」(滿江紅 —漢水東流)라 하였다.  
13) 그밖에 연병(燕兵)이란 말로 금나라 군대를 비유하여 “북방의 군사는 밤에 은호목을 정돈하고” (燕兵夜妮銀胡鞞) —「청평악 —청년 때 깃발 들고 용사 만 명 이끌고」(鷓鴣天 —壯歲旌旗擁萬夫)라 하였다.

고(滿江紅 一怒髮沖冠)에 나오는 “장대한 포부에 오랑캐 살을 게걸스레 먹고, 웃으며 흉노의 피를 목마른 듯 마시리라.”(壯志饑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에서 보듯 당시 공유했던 어휘들이지만 신기질의 작품에서는 남북 대치의 의미를 더 명확히 나타내고, 현재 남송이 처해있는 상황이 이전의 모든 역사적 남북 대치 상황과 동일한 성격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즉 신주와 중주는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 땅이고, 중원에 들어온 북방족은 몰아내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신기질은 남북 대치가 고대부터 있었고, 그러한 기시감에서 이러한 어휘들에 깃들여 있는 의미들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남북 대치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중원 회복의 당위성을 나타내었다.

### 3) 남조에 대한 기시감

신기질의 사는 특히 남조에 대한 기시감을 많이 드러내었다. 그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남송의 형세에서 종종 북조와 대치하던 남조의 상황이 현실에서 재연되는 역사적 기시감(既視感)을 느꼈다. 그것은 강한 북방과 약한 남방이라는 구도일 뿐만 아니라, 비한족(非漢族)의 북방과 한족의 남방이라는 구도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도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남송은 역사적으로 남북조시대와 가장 유사했다. 남북조시대 서진이 비한족에 밀려 동진으로 내려온 때부터 시작하여 유송, 제, 양, 진으로 약 이백 년 이어졌다. 특히 북송이 여진족에 밀려 내려와 남송이 된 상황은 서진이 내려와 동진이 된 때와 가장 유사하였다.

그러나 남송의 현실 상황은 신기질의 지향과 이상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군사적으로 약한 남송으로서는 화친으로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고도 회복을 바라는 신기질은 편안(偏安) 정국을 유지하며 이익을 탐하는 완고한 보수 세력과의 격투를 벌여야 했다. 그의 필봉은 현실의 분단 상황에서도 공담에 빠진 위정자를 가리키지 않을 수 없었다.

바라보면 중원엔 선비들이 가득했는데  
지금 태양 아래에는 싸우다 죽은 백골들뿐이로다.

청담에 몰두하던 왕연(王衍)의 무리를 탄식하노라!  
한밤에 미친 듯 노래하니 슬픈 바람이 불고  
처마 끝 쟁그랑거리는 풍경소리에 말 달리는 소리 듣는다.  
남방과 북방이  
찢겨져 있구나.

(起望衣冠神州路, 白日消殘戰骨. 歎夷甫諸人清絕! 夜半狂歌悲風起, 聽  
錚錚陣馬簷間鐵. 南共北, 正分裂.)

—「하신랑 —그대의 시를 자세히 논한다면」(賀新郎 —細把君詩說)

천마(天馬)가 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온 이래  
진정 천하를 경륜할 인제는 몇이나 되는가?  
장안의 어르신들 왕의 군대 기다리고  
남도한 관료들 신정(新亭)의 풍경 보고 탄식하지만  
애석하게도 갈라진 산하는 예와 다름없구나.  
청담에 몰두하던 왕연(王衍)의 무리들  
중원이 함락되어도  
언제 머리 돌려 보기라도 했던가?  
만 리의 오랑캐 평정하여  
공명을 이루는 일이  
진정한 선비의 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渡江天馬南來, 幾人真是經綸手? 長安父老, 新亭風景, 可憐依舊. 夷甫  
諸人, 神州沉陸, 幾曾回首! 算平戎萬里, 功名本是, 眞儒事, 公知否.)

—「수룡음 —천마가 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온 이래」(水龍吟 —渡  
江天馬南來)

장검을 하늘에 세워두는 기개를 누구에게 묻나  
청담에 빠진 왕연(王衍)의 무리를 비웃노니  
서북에는 아직 수복할 땅이 있다네.  
이 일을 그대가 맡아 완수한다면  
천고의 영웅처럼 일엽편주를 타고 은거해도 좋으리.

(長劍倚天誰問, 夷甫諸人堪笑, 西北有神州. 此事君自了, 千古一扁舟.)

—「수조가두 —해와 달은 우주의 맷돌 위를 기어가는 개미와 같  
고」(水調歌頭 一日月如磨蟻)

신기질은 자신의 뜻을 말할 때나 남을 격려할 때도 “서북에는 아직 수복할 땅이

있고 “남방과 북방이 찢겨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남송의 조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공리공담에 빠진 위정자들을 반복하여 ‘왕연의 무리’(夷甫諸人)라 비유하였다. 왕연(王衍)은 서진의 문벌세족인 낭야 왕씨 출신으로, 원래 왕도(王導)가 “높이 솟아 우뚝하니, 천 길 암벽이 서있는 듯하구나.”(巖巖清峙, 壁立千仞.)라 평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다.<sup>14)</sup> 돈을 속물로 여겨 ‘이것’(阿堵)이란 부른 일화는 유명하다.<sup>15)</sup> 그는 벼슬이 사공(司空)과 사도(司徒)가 되어도 나라가 아닌 개인의 이익에 몰두하여 자신의 형제들을 형주 자사와 청주 자사 등 요직에 앉혔다. 당시 북방의 비한족들이 중원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오호십육국이 시작되었고 서진은 전조(前趙)와 후조(後趙)의 위협을 차례로 받다가 결국 후조의 석륵(石勒)에게 패하여 왕후장상들이 모두 불려나가게 되었다. 당시 석륵이 서진의 일에 대해 묻자, 태위이자 상서령의 직위에 있던 왕연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서진의 패배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였다. 정치적 자리에서 청담을 하고 있는 셈인데 평시라면 모를까 국난의 상황에도 이렇다는 것은 대세를 모르는 어리석음일 뿐이었다. 이를 들은 석륵은 그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나 욕을 퍼붓고 사람을 시켜 벽담을 밀어 왕연을 죽이게 했다.<sup>16)</sup> 그로부터 몇 십 년 후 동진의 환온(桓溫)이 북벌하러 강릉에서 군사를 일으켜 회수와 사수를 지나 국경을 넘어갈 때, 배를 타고 중원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말하였다. “마침내 중원이 함락되어 백년간 폐허가 되었으니, 왕연의 무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遂使神州陸沉, 百年丘墟, 王夷甫諸人不得不任其責.)<sup>17)</sup> 환온이 말한 ‘왕연의 무리’라는 말을 신기질이 그대로 끌어와 당시 무능한 남송의 위정자들을 가리켰다.

신기질은 남송의 현실을 곧잘 남조의 사건으로 비유하였다. 그것은 남송의 일이나 인물이 맞닥뜨린 상황이 서진의 상황과 지극히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남조의 역사를 떠올린 것은 남송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함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14) 劉義慶 撰, 余嘉錫 箋疏, 『世說新語』「賞譽」, 上海古籍出版社, 1993, 442쪽.

15) 劉義慶 撰, 余嘉錫 箋疏, 『世說新語』「規箴」, 上海古籍出版社, 1993, 557쪽.

16) 房玄齡 等撰, 『晉書』「王衍傳」, 中華書局, 1974, 1238쪽.

17) 劉義慶 撰, 余嘉錫 箋疏, 『世說新語』「輕詆」, 上海古籍出版社, 1993, 834쪽.

그가 양주에 들렀을 때 남북의 대치 상황을 상기하며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였다.

해 떨어지는 변경에 먼지 일어나  
오랑캐 기병이 가을에 전쟁을 일으켰지.  
한나라 군사 십만  
늘어선 병선(兵船)이 높은 누대처럼 솟았지.  
누가 말했나, 채찍으로 강을 메워 건널 수 있다고  
예전에 흉노가 그의 아들 모돈(冒頓)의 명적(鳴鏑)에 죽고  
비바람 속 탁발도(拓跋燾)도 참담하였지.  
(落日塞塵起, 胡騎獵清秋. 漢家組練十萬, 列艦聳高樓. 誰道投鞭飛渡,  
憶昔鳴鏑血汚, 風雨佛狸愁.)  
—「수조가두 —해 떨어지는 변경에 먼지 일어나」(水調歌頭 —落日塞塵起)

이 작품을 쓸 때는 1178년(39세) 늦여름으로, 작품 속에서 말한 “오랑캐 기병이 가을에 전쟁을 일으킨” 때는 17년 전인 1161년(22세)으로, 자신도 제남에서 의병으로 참전했던 금군의 남침 때를 말한다. 그때 금나라 군사가 양주를 함락시켰던 것이다. 부견은 저족(氐族)이고, 모돈은 흉노족이고, 불리(탁발도)는 선비족으로, 모두 비한족의 수령이면서 한족과 대결하였다. 383년 전진의 부견이 90만 대군을 이끌고 동진을 향해 남침할 때는 자부심도 드높이 “나의 이 많은 군사들이 채찍을 장강에 던지면 그 흐름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以吾之衆旅, 投鞭於江, 足斷其流.)고 호언장담하였다.<sup>18)</sup> 이 ‘투편단류’(投鞭斷流)의 고사는 금나라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음을 감각적으로 일깨워준다. 또 기원전 201년부터 흉노의 왕 모돈이 윤중군 등지로 남하하여 서한 초기의 중원에 위협을 가하였다. 또 450년 북위 태무제 탁발도가 유송의 군대를 추격하여 장강 북안의 과보산(瓜步山, 지금의 강소성 육합현 동남)까지 이르러 행궁을 지었다. 신기질은 최근에 일어난 금나라의 양주 점령을 회고하며, 이러한 북방 비한족의 남침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온 일임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신기질의 만년에 조정에서 시도한 무모한 북벌 계획도 남조 시기의 경솔한 북벌

18) 房玄齡 等撰, 『晉書』「苻堅載記」, 中華書局, 1974년, 2912쪽.

을 가져와 비판하였다.

원가 연간에 송 문제가 경솔하게 북벌하여  
 광거병처럼 낭거서(狼居胥)에서 하늘에 고하는 공을 세우려 하였으나  
 오히려 패배하여 황망하게 내려와 북방을 바라보았지.  
 —「영우악 —천고의 강산」(永遇樂 —千古江山)

위 구절은 남조의 송 문제가 450년(원가 27) 왕현모(王玄謨)를 시켜 경솔하게 북벌하였다가 실패한 일을 비판하였다. 신기질은 이를 가지고 남송에서 1205년 영종(寧宗)과 한차주(韓侂胄)가 무모하게 북벌을 시도한 일을 비유하였다. 다시 말해 영종과 한차주가 남조의 송 문제와 왕현모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유사한 역사의 예를 가져와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모두 금나라와 마주한 남송의 현실을 비유하는 것으로 남송이 남조 때와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보면 남북의 대치에서 오는 남조 역사에 대한 기시감은 남송의 상황에 대응되어 더욱 강렬해지고 이로부터 더욱 높은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4) 역사 현장에서의 남조 회고

신기질은 남송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많은 곳에서 다녔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곧잘 남조의 상황을 회고하며 현실 인식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수에 대해서도 “한수는 동으로 흘러가며, 수염 난 오랑캐의 피와 기름을 모두 씻어버렸어라.”(漢水東流，都洗盡鬚胡膏血.)라고 말하며 금나라 군사를 물리친 일을 상기하였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역사 현장으로 대표적인 곳으로는 금릉(남경)의 신정(新亭), 진강, 양주, 저주, 채석기, 울고대 등이다.

금릉(남경)의 서남 교외에 있는 신정(新亭)은 동진 때의 일화로 유명한 곳이다.

남도한 관료들 신정의 풍경 보고 탄식하지만  
 애석하게도 갈라진 산하는 예와 다름없구나.

(新亭風景, 可憐依舊.)

—「수룡음 -천마가 강을 건너 남으로 내려온 이래」(水龍吟 一渡  
江天馬南來)

눈을 들어 돌아보니 산하는 비록 달라도

풍경은 다르지 않구나.

(山河舉目雖異, 風景非殊.)

—「한궁춘 -정자에 가을바람이 소슬하게 부는데」(漢宮春 一亭上  
秋風)

신정은 동오 때 지은 것으로, 지금의 남경시 서남쪽 교외에 소재했다. 동진이 남도하여 금릉에 도읍을 정한 초기에 명사들이 곧잘 서남 교외의 신정(新亭)에 모였는데, 주위의 경관이 낙양의 산천과 비슷한 걸 보고 나라를 잃은 비탄에 눈물을 흘린 일이 『세설신어』에 기록되어 있다.

“장강을 건너 온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면 번번이 신정에 모여 풀을 깔고 앉아 연회를 가졌다. 주의(周顛)가 좌중에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풍경은 다르지 않건만, 산하가 다르구나.’라고 하자 모두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승상 왕도(王導)만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웅당 왕실에 힘을 다하여 중원 땅을 다시 찾아야지, 어찌 초나라 포로처럼 서로 마주 보고만 있던 말인가!’라고 하였다.”<sup>19)</sup>

신기질의 위의 두 작품은 이 고사를 환기한 것으로, 첫 번째 사에서는 탄식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여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고, 두 번째 사에서는 지금 남송의 현실이 고토를 잃은 상황임을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남송은 곧 동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였다.

금릉에서 가까운 진강(鎮江)과 양주(揚州)는 남송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도성과 가까워서도 그렇지만, 진강의 북고루에서 바라보는 장강 너머 펼쳐진 풍광은 곧 잃어버린 북방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감회가 없을 수 없다.

19) 劉義慶撰, 余嘉錫箋疏, 『世說新語』「言語」: “過江諸人, 每至美日, 輒相邀新亭, 藉卉飲宴, 周侯中坐而歎曰: ‘風景不殊, 正自有山河之異.’ 皆相視流涕. 唯王丞相愀然變色曰: ‘當共戮力王室, 克復神州, 何至作楚囚相對!’” 上海古籍出版社, 1993, 92쪽.

고국은 어디에 있는가?  
 두 눈에 가득한 풍광을 북고루에서 바라보노라.  
 천고의 수많은 흥망성쇠  
 유유히  
 장강은 끝없이 출렁거리며 흘러간다.  
 (何處望神州? 滿眼風光北固樓。千古興亡多少事, 悠悠, 不盡長江滾滾流。)  
 —「남향자 -고국은 어디에 있는가?」(南鄉子 -何處望神州)

강남에 내려온 지 사십삼 년  
 바라보면 아직도 기억하나니  
 양주 일대에 올랐던 봉화.  
 차마 고개 돌려 볼 수 없나니  
 강 건너 불리사(佛狸祠)에서  
 사당의 까마귀와 제사 지내는 북소리 시끄럽구나.  
 —「영우악 -천고의 강산」(永遇樂 -千古江山)

위 두 작품은 1204년(65세) 늦봄부터 다음해 1205년(66세)까지 진강부 지부로 부임하였을 때 각각 북고루에 올라가 지었다. 특히 「영우악」에서 말한 양주 함락은 1161년 금나라 완안량이 남침하여 점령한 일을 가리킨다. 또 불리사(佛狸祠)는 북위의 황제 탁발도를 모시는 사당으로, 앞서서도 서술했듯이 450년 탁발도가 송군을 추격하여 장강 북안의 과보산까지 이르러 행궁을 지었고, 나중에 이곳에 불리사를 지은 일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역사의 일은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역설한 셈이다. 특히 신기질이 만년에 쓴 「영우악」은 역사적 현실을 드러내면서 전편에 강개하고 비장한 기운을 담아낸 명편으로, 명대 양신(楊慎)은 신기질 사 가운데 뛰어난 작품으로 평하였다.<sup>20)</sup>

금릉에서 장강을 건너 북으로 올라가면 멀지 않은 곳에 금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 저주(滁州)가 나온다. 이곳 지주로 부임한 1172년(33세)에 신기질은 “정치를 관대하게 하고 조세를 적게 거두며, 떠돌고 흩어진 백성들을 부르고,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둔전을 의논하였다.”(寬政薄賦, 招流散, 教民兵, 議屯

20) 楊慎, 『詞品』 권5: “岳河北固亭「祝英臺近」…此詞感慨忠憤, 與辛幼安「千古江山」一詞相伯仲.” 辛更儒, 『辛棄疾資料彙編』, 中華書局, 2005, 193쪽.

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반년도 되지 않아 저주는 활기를 되찾았다. 신기질은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부임한 해 가을 전침루(奠枕樓)를 지었다. 이곳에 올라 변경에 있는 저주의 군사적인 상황으로부터 동남의 남송과 금나라가 차지한 북방의 중원을 대비하여 보게 된다. 소강상태에 있는 전선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감회를 터뜨렸다.

올해는 만 리에 걸쳐 태평이라  
 지나긴 회수에 적의 기병도 없는 가을.  
 (今年太平萬里, 罷長淮千騎臨秋.)  
 —「성성만 —수레 먼지 일으키며」(聲聲慢 —征埃成陣)

금릉에서 서남쪽으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도(當塗)가 나타나는데 강가에 유명한 채석기(采石磯)가 있다. 우저기(牛渚磯)라고도 하는데 이백이 노닐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며 장지화(張志和)의 「어부사」에 “서새산 앞에 백로가 날고”(西塞山前白鷺飛)란 구절로도 유명하다. 지금의 안휘성 마안산시(馬鞍山市) 서남에 위치하며 채석강(采石江) 강변에 강을 향해 돌출해 있는 작은 산이다. 장강의 동단 가운데 이곳의 강폭이 가장 좁아 나무터가 있었고, 역대로 남북 사이의 전쟁 때 이곳에서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았다.<sup>21)</sup>

비취빛 봉우리 깎아 천 길 높은 벼랑이 섰고  
 강에 떨어지는 해는 황금이 녹는 듯하다.  
 오고 가는 흰 갈매기 본래 무심한데  
 무엇을 상관하랴, 풍파가 일어나도 내맡겨야 하는 것을.  
 (千丈懸崖削翠, 一川落日鎔金. 白鷗來往本無心, 選甚風波一任.)  
 —「서강월 -비취빛 봉우리 깎아 천 길 높은 벼랑이 섰고」(西江月 —千丈懸崖削翠)

21) 역대로 채석기를 오가며 군사 이동이 많았다. 195년 孫策이 이곳에서 건너 劉繇를 공격했고, 279년 王渾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건너 동오를 공격했고, 548년 侯景이 이곳을 건너 건강으로 향했고, 589년 韓擒虎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건너 진나라를 격파했고, 974년 曹彬이 강을 건너 남당을 격파했고, 1161년 虞允文이 내려오는 금나라 황제 완안량의 군대도 이곳에서 격파했다.

나라의 흥망이 걸린 많은 전투와 군사 이동이 이곳 채석기에 있었으니 비록 흥망을 논한다 해도 이미 지난 일이어서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남송이 강남으로 내려온 일에 대한 무한한 아쉬움을 감추고 있다.

북송 초기의 역사로 아픈 곳으로 조구(造口)가 있다. 조구는 지금의 강서성 만안현(萬安縣) 서남, 조수(皂水)가 공수(贛水)로 흘러드는 어구에 있다. 신기질은 울고대(鬱孤臺)에 올라 강과 산을 바라보면서 약 40년 전 국치의 현장인 조구를 연상하며 국가의 흥망에 대한 감개를 표현하였다.

울고대 아래 맑은 강물  
 얼마나 많은 행인이 눈물을 흘렸던가.  
 서북으로 장안 쪽 바라보니  
 안타깝게도 무수한 산으로 막혀 있구나.  
 (鬱孤臺下清江水, 中間多少行人淚, 西北望長安, 可憐無數山.)  
 —「보살만 -울고대 아래 맑은 강물」(菩薩蠻 -鬱孤臺下清江水)

원래 1127년 금나라가 변경(汴京)에 들어와 휘종과 흠종을 북으로 끌고 간 후, 용우 태후(隆佑太后)가 수렴청정하면서 고종(高宗)을 맞이하는 등 현능하게 처리하여 중흥의 환경을 만들었다. 곧 이어 고종과 용우 태후는 각각 금군(金軍)의 추격을 받아 남으로 내려갔기에 이러한 피난은 남송 정권의 존망이 달린 일이었다. 금나라 군대가 조구까지 추격하였고 용우 태후는 배에서 내려 농부의 견여(肩輿)를 타고 달아났다. 이러한 국치의 현장은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는 것으로, 신기질은 치욕의 고통과 고토를 수복하지 못하는 비분을 나타냈다. 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남조의 일과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서북으로 장안 쪽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남북의 대립이라는 지리적 구도에서 바라보았고, 이러한 지리적 대립은 역사적 대립이라는 구도와 연결되어 남북 대치의 상황을 환기하였다.

## 5) 인물 전고에 나타난 역사적 기시감

역사에 대한 기시감은 인물들에서도 나타난다. 신기질은 역사에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칭송함으로써 남송의 군주들이 적극적으로 고토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가 칭송한 인물 가운데 한 갈래는 공업을 남긴 군주들이다. 역사 순으로 보면 여와(女媧), 우(禹), 연 소왕(燕昭王), 유방(劉邦), 조조(曹操), 유비(劉備), 손권(孫權), 유유(劉裕) 등이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고, 영웅적인 업적을 남겼기에, 역사 속에 이들을 불러내 현실 속에서 활동하기를 바랐다. 그것은 곧 당시 남송의 군주들이나 위정자들이 안주하는 상황을 질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중에는 삼국시대와 남조의 인물들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석양 속의 풀과 나무  
백성들이 사는 거리와 골목  
바로 유유(劉裕)가 일찍이 살았던 곳이라 사람들이 말하네.  
당시 청동 창 휘두르며 철마 탄 모습 생각하니  
그 기세는 만 리의 기운을 삼키는 호랑이 같았으리.  
—「영우악 —천고의 강산」(永遇樂 —千古江山)

오 땅과 초 땅이  
동남으로 갈라 나뉘고  
영웅이 일어나  
조조와 유비에 맞섰더라.  
(吳楚地, 東南拆. 英雄事, 曹劉敵.)  
—「만강홍 —시내와 산을 바라보니」(滿江紅 —過眼溪山)

신기질이 유송(劉宋)을 세운 유유를 높이 칭송한 것은 부패한 동진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국가를 세우려고 한 뜻이 있기 때문이었다. 동진의 문벌세족이 발호한 형세 속에서 한문(寒門) 출신으로 발분한 뜻을 높이 산 것이다. 그것은 곧 남송의 상황에서도 강력한 군주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또 신기질이 손권을 유독 높이 평가한 일도 강좌에 도움을 두고 강대한 조조와 촉한의 유비에 맞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우악 —천고의 강산」(永遇樂 —千古江山)에서도 “천고의 강산, 영웅을

찾아보아도, 손권 같은 사람 찾을 곳 없구나.”(千古江山, 英雄無覓, 孫仲謀處.)라고 하였고, 이는 남송의 처지를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은 영웅한 군주를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군주에 맞추어 신기질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획을 받거나 배제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 또는 은거하는 중에도 분발하는 인물들을 내세워 유능한 인재들이 활동하게 되기를 바랐다. 즉 굴원(屈原), 염파(廉頗), 가의(賈誼), 이광(李廣), 진등(陳登), 제갈량(諸葛亮), 조적(祖逖), 유곤(劉琨), 사안(謝安), 도연명(陶淵明) 등과 같은 인물들의 충분(忠憤)에 공감하며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삼국시대와 동진과 같은 분열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로, 남송의 신기질은 이들로부터 정신적 유대를 나타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도연명이다.

지난 날 일찍이 논했으니  
도연명이 제갈량보다 더 뛰어난 듯하다고.  
(往日曾論, 淵明似勝臥龍些.)

—「옥호접 —귀천은 우연에 따른 것이어서 마치」(玉蝴蝶 —貴賤  
偶然渾似)

그에 비한다면 진등과 같은 그대는 백척루에 있을 만하여  
강호에서 평소 호기가 높았지.  
(更覺元龍樓百尺, 湖海平生豪氣.)

—「염노교 —좋은 술을 사려면」(念奴嬌 —爲沽美酒)

신기질은 도연명에 대해 특별한 정감을 가져, 그의 작품 가운데 도연명과 관련된 시는 70여 수나 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은일거사가 아니라 제갈량과 같았던 사람이 다만 뜻을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도연명은 신기질의 의식 속에서 유유자적한 은자에서 점점 강개한 지사로 변모해갔다. 삼국시대 진등도 자신의 안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분발한 모습에서 높이 존중하였다. 그러한 인물들은 곧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엄중한 현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신기질이 높이 존경한 인물이 남북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때의

인물들이 두드러진 것은 자신과 동일한 역사적 환경 속에 있다는 기시감에서 우러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3. 마무리글

신기질은 역사의식이 뚜렷한 무인(武人)으로, 중원 회복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국가적 과제이자 자신의 이상으로 여겼다. 그가 처한 남북 대치의 현실에서 그는 곧잘 남송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한 남북조와 연관시켜 보았고 이를 작품 속에 여러 방면에서 형상화시켰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남북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역사와 지리에서 남조의 상황으로 남송의 현실을 비유하였으며, 역사 인물 가운데 특히 남조의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다.

남조의 역사는 그에게 역사의 반면교사로 언제나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한 남조의 역사가 남송에서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에게 현실에서의 경각심을 늦출 수 없었고, 이를 반영한 작품에서 부단히 여러 각도에서 기시감으로 형상화되었다. 역사 인물 가운데는 반면교사뿐만 아니라 정면교사도 있어 특히 도연명은 유유자적한 은자에서 점점 강개한 지사로 변모해갔다.

신기질이 남송의 모습에서 남조의 역사를 연상한 것은 그의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나왔다. 물론 그의 역사 인식 속에 남조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히 남조를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여러 방면에서 형상화한 것은 역사상황과 지리환경이 남송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은거하며 한일한 정취를 읊은 경우마저 뜻을 얻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한 것이기에 절로 높은 목소리가 나왔고 때로 세속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섞여들었다. 그리하여 풀기가 강하고 역사와 현실에 깊은 감개를 표현한 작품이 많이 지어졌으니, 이러한 제재와 주제의식 자체가 호방사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그리하여 송사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완약한 지분기가 완전히 씻어냈다.

이처럼 신기질은 남북이 대치된 시대에 실지를 회복하려는 역사의식, 남송의

지리적 특징, 역사적 유적지에서의 회고, 영웅적 인물에 대한 포폄 등에서 남송이 남조와 유사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 남송의 상황으로부터 동진이 주는 역사적 기시감을 강하게 느끼고, 남송이 남조와 같은 수세의 역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기시감과 역사 인식은 신기질의 근본적인 현실 인식의 기초가 되었고, 호방사로 형상화 되어 나타났다. 이는 신기질이 다른 어느 사인보다도 명확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갖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參考文獻〉

- 辛棄疾 撰, 鄧廣銘 箋注, 『稼軒詞編年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93.  
鄧廣銘, 『辛棄疾詩文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鄧廣銘, 『辛棄疾傳 辛稼軒年譜』, 三聯書店, 2007.  
辛更儒, 『辛棄疾資料彙編』, 中華書局, 2005.  
劉義慶 撰, 余嘉錫 箋疏, 『世說新語』, 上海古籍出版社, 1993.  
房玄齡 等撰, 『晉書』, 中華書局, 1974.  
脫脫 等撰, 『宋史』, 中華書局, 1985.  
이동향, 『稼軒辛棄疾詞研究』, 通文館, 1985.  
唐圭璋 編, 『詞話叢編』, 中華書局, 1986.  
楊海明, 『唐宋詞史』, 江蘇古籍出版社, 1987.  
楊海明, 『唐宋詞與人生』, 河北人民出版社, 2002.  
孫崇銀 等編, 『辛棄疾研究論文集』, 中國文聯出版公司, 1993.

〈Abstract〉

The Historic Déjà vu and Literary Figuration of the South Dynasty  
in the Xin Qiji's Ci

Seo, Sung

Xin Qiji is a warrior-writer of historical consciousness, thinking that Central Plains's recovery is a national task that gives priority to anything and is his ideal. Due to the reality of South-North confrontation, he frequently visualized the situation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ly most similar the Southern Dynasties, in his works, in a number of ways. In his career, he experienced the history of the North-South and metaphors the reality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the context of the Southern Dynasties of history and geography, and in particular among the historical figures of himself the person of the Southern Dynasties.

The history of the South Dynasty has always been an object to be wary of as a teacher to him as opposed to history. The history of such Southern Dynasties was replayed again at the Southern Song Dynasty, but the fear could not delay him alertness in reality, and it is a work that reflects this and is constantly deceiving from various angles. It was shaped into a sense. Among the historical figures, not only the teacher, but also the front teacher, Tao Yuanming, in particular, transformed from an irresponsible hermit to an increasingly patriotic patriot.

It was his high sense of mission and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Xin Qiji reminiscent of the history of the South Dynasty in the form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Of course, I did not recognize the Southern Dynasties in his historical awareness, especially I recognized the Southern Dynasties remarkably, I imagined in each direction, the history situation and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are best with the Southern Song Dynasty. Because it was similar.

As you can see, Xin Qiji,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rying to restore the practice in the era wh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fronte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recall on historic ruins, the popular heroic person such as the Southern Song Dynasty I recognized that it was in the same state as the Southern Dynasties. From the situation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Eastern Jin Dynasty gave the historic Déjàvu a strong feel, urg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do its best to not reproduce the history of the defense like the Southern Dynasties. These historic Déjàvu and historical recognition became the basis of Xin Qiji's fundamental reality recognition and appeared as being shaped into Haofang Ci.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Xin Qiji had a clearer work world than any other poet.

Key words: Xin Qiji, Song Ci, historic Déjàvu, Haofang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Southern Dynasties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4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3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11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